

이종엽 신임 대한변협회장 취임... '지역 수호 앞장'



법조인 동정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아래 사진)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년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했다. 이 협회장은 '지역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하며 '변호사들을 위한 협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협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역대 가장 많은 후보들이 출마한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 뜨거운 지지와 선택을 받고 영광스러운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협회장으로로서 가져야 할 사명들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회원 여러분과 이뤄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과잉공급을 막고

지역침탈에 대응하는 한편 변협의 위상을 회복하고, 변협을 개혁해 변호사들을 위한 협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협회장과 함께 대한변협을 이끌어갈 새 집행부도 구성됐다. 박종훈(55·31기) 수석부 협회장을 비롯해 김관기(58·20기), 김영훈(57·27기), 김형준(47·35기), 박상수(42·2회), 서정만(58·군법무관임용시험 8회), 이상직(56·26기), 이영갑(58·21기), 이춘희(61·15기), 최지수(40·37기) 변호사 등 10명이 부협회장에 임명됐다.

또 △총무이사 김대광(44·41기) △재무이사 김연수(52·34기) △제1기획이사 남기욱(54·31기) △공보이사 김민주(42·변시 2회) △1법제이사 이춘수(51·32기) △윤리이사 김형빈(47·39기) △국제이사 허중혁(50·변시 1회) △사업이사 홍세욱(50·42기) △정책이사 김진우(39·변시 3회) △홍보이사 최재윤(39·42기) △교육이사 김민규(37·변시 3회) △인권이사 우인식(46·변시 2회) △회원이사 김홍태(52·41기) △2기획이사 최웅식(38·변시 2회) △2법제이사 김미주(39·변시 1회)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이날 새 감사들도 선출됐다. 정재기(40·41기), 김숙희(51·39기), 이재욱(55·26기), 홍성훈(41·2회), 최재원(48·3회), 조감사(40·9회) 등 6명의 후보를 두고 전체 대의원 유권자 438명 중 215명이 투표했다. 그 결과 홍성훈 변호사가 91표(36.25%), 정재기 변호사가 68표(27.09%), 최재원 변호사가 51표(20.32%)를 득표해 감사로 선출됐다.

2023년 2월까지 앞으로 2년간 대한변협 총회를 이끌어 갈 총회 의장으로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출신의 이담(61·19기) 변호사가 선출됐다. 그는 “의장으로서 협회장에 대한 견제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총회 부의장에는 안병희(59·군법 7회) 변호사가, 총회 간사에는 박철(48·36기)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원 포상도 실시됐다.

반세기 넘게 변호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변호사에게 수여되는 ‘변호사 50년상’은 김영창(100·판검사 특별임용시험 2회), 김홍재(87·고시 8회), 이윤희(76·사시 9회), 장영철(85·고시 13회), 현순철(95·고시 12회) 변호사 등 5명이 수상했다.

‘공로상’은 김대휘(65·10기), 남기욱(54·31기), 배태민(53·군법 12회) 변호사 등 25명, ‘청년변호사상’은 이영준(36·1회), 정재욱(35·4회), 홍세욱(50·42기) 변호사 등 16명이 수상했다.

또 손병호(42·1회), 오민애(34·4회), 이아린(39·2회) 변호사 등 20명이 ‘표창’을 받았고, 목영준(66·10기) 김연장 사회공헌위원장은 ‘감사포상’을 받았다.

한편 전임 집행부를 맡았던 이찬희(56·30기) 제50대 대한변협회장은 이날 이임사에서 “2년전 9322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50대 집행부를 맡겨주셨는데 퇴임 인사를 올리게 되니 지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며 “지난 임기중 단 한 건도 전관에 우가 문제된 적 없었고, 직역수호에도 최선을 다해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통과를 저지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사회정의와 공익활동을 통해 전임 변협회장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출처/법률신문)